

엔지니어에서 영화쟁이 되기까지 막전막후 스토리

“거기 CBS 시네마쥬? 위치 좀 알려주세요~~~”

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화기 너머로 자주 들려오는 소리였다.

CBS 시네마가 극장인 줄 착각해 위치를 알아보고 <프리덤> 영화를 보시려던 ‘고마운 분들’이었다. 그리고 보면, 나 또한 기술 근무를 잠시 뒤로하고 영화 일을 시작하며 ‘초보 배급쟁이’로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 같다. 영화감독에서부터 수입사, 배급사, 홍보사, 심지어 극장을 운영하다 망하신 분까지... 영화를 좀 안다는 분들에게 두서없이 찾아가 자문을 구하곤 했으니 말이다. 그때마다 한결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“왜 이리 힘든 일을 시작하려고~?”, “기독교 영화.. 어려워~”, “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?”, “영화판이 ‘갑질’이 제일 심해~”, “배급을 직접 하겠다고요?”, “일하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? 그 인원으로 어려울 텐데~”...

처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혹시, 우리가 자신들의 ‘밥그릇’을 탐내는 줄 알고 막는 줄 알았다. 그러나 수입, 배급, 홍보, 마케팅, 재무회계까지... 막상 시작하고 보니 ‘장난’이 아니었다. 나름 ‘맨땅에 헤딩’하면서 보낸 6개월 동안 ‘초보 영화쟁이’로서 체득한 공식 세 가지는 이렇다.

일단 부딪쳐라!

1단계

너무 쉽게 생각했다.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던가? 영화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다.

부율*이 뭐예요? VPF**가 뭐예요? 영화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모르니 계속해서 물어보고, 또 물어볼 수밖에. 그렇게 하나, 둘... 배워나가는 것 말고는 상책이 따로 없었다.

부율*이란 배급사와 극장 간에 영화티켓가격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.

보통 40:60으로 극장이 60%를 가져가지만 프리덤의 경우는 50:50으로 성사시켰다.

VPF(Virtual Print Fee)**는 디지털시네마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배급사나 극장이 영화상영장비 사용료를 지불하는데, 그 비용을 말한다.



첫 상영작 <프리덤>



두 번째 상영작 <레터스 투 갓>

2단계

음소해라!

그냥 '맨땅에 헤딩'하다 보니 극장과 업체에 음소할 때가 많았다.

"11월 19일에 개봉해야 하니 어떻게 안 될까요? 어떻게든 제발 해주세요. 부탁 드려요."

수입과 심의받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수없이 내뱉었던 말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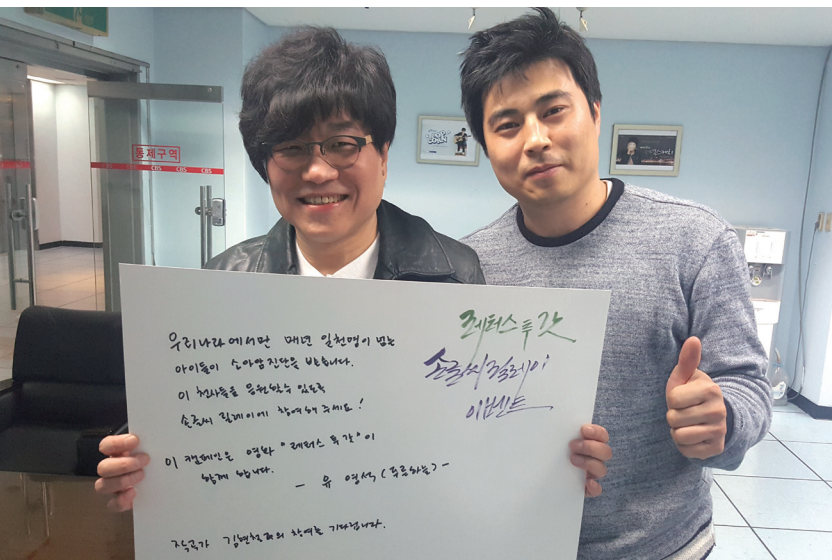
3단계

철저하게 '을'이 되라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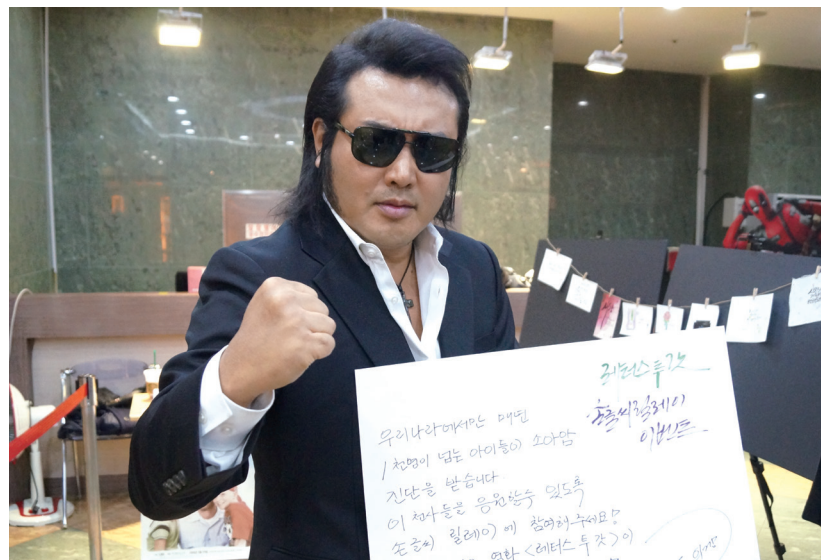
한 극장에서, CBS의 영화가 원하는 상영시간이 열리지 않아 매니저를 찾아갔다. '안녕하세요. CBS 아무깁니다'라는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들려오는 건 '그런데요?' 같은 냉랭하기 그지없는 반응이었다. 그래도 CBS면 어디서든 통했는데, 영화판에서는 전혀 아니었다. 원하든 원치 않든 생소한 영화판에서 철저하게 '을'이지 않고서는 안 되었다.

이런 어려움을 딛고, CBS의 첫 상영작이자 '나 같은 죄인 살리신'을 작사한 존 뉴턴(1725~1807)의 실화를 담은 영화 '프리덤(Freedom)'이 관객 10만 명을 모았고, 약 한 달여 만에 '아메리칸 셰프', '미라클 벨리에' 등에 이어 9번째로 10만 관객을 모은 다양성 영화가 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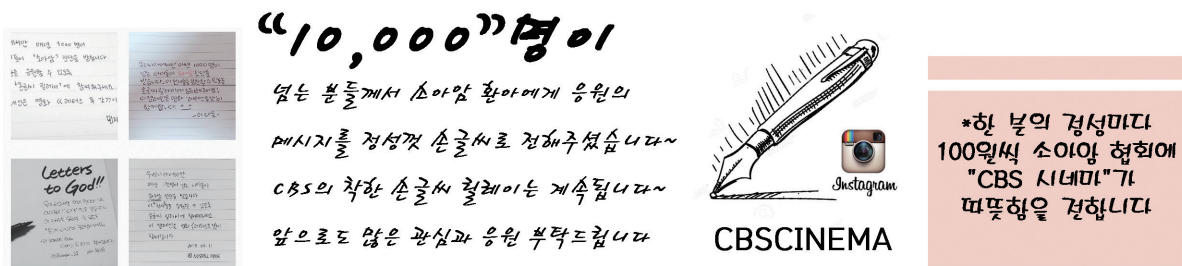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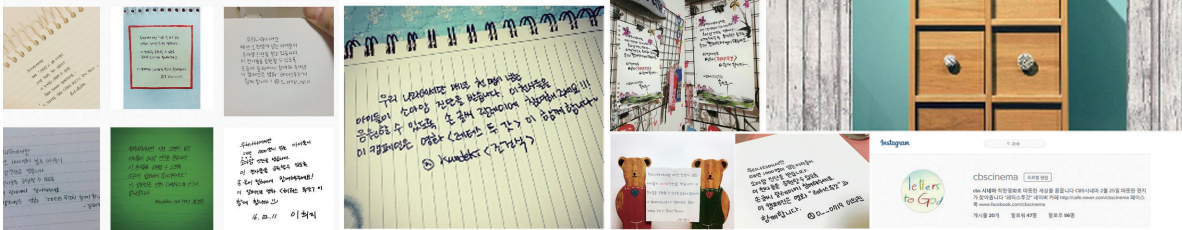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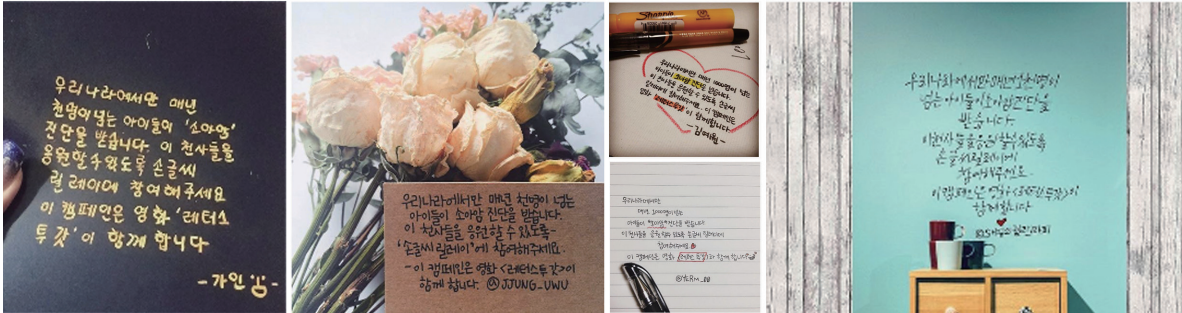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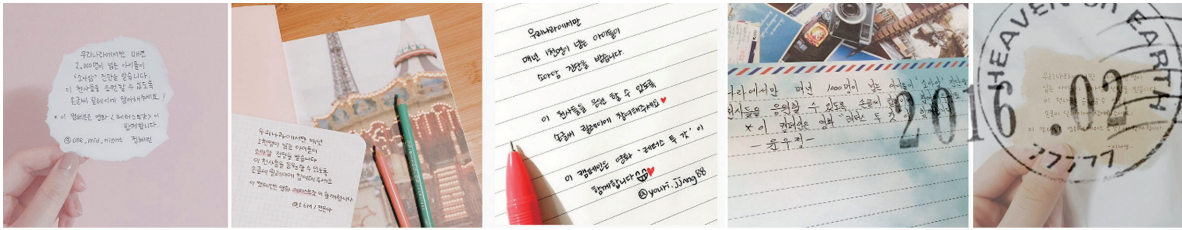
두 번째 상영작인 '레터스 투 갓(Letter To GOD)'은 소아암 환아가 하늘로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가족과 이웃에 희망을 전하는 감동 실화이며, 다양성 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.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소아암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하고, 응원하고 싶어 '손글씨 릴레이 이벤트'도 진행했다. 1만 7천여 명의 많은 분들이 CBS의 뜻과 함께해주셨고, 소아암 가정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었다.



손글씨 릴레이 이벤트에 참여한 DJ 유영석과 필자



영화배우 김보성



소아암의 날 손글씨 릴레이



세 번째 상영작 <불의 전차>

세 번째 영화 <불의 전차>는 1981년 작이지만 국내 스크린에는 처음 개봉되는 작품으로 <이터널 선샤인>, <인생은 아름다워>와 같은 명작들과 같이, 재개봉 열풍에 가담할 예정이다. 특히, <불의 전차>는 제54회 아카데미 4관왕, 제34회 칸 영화제 기독교심사위원상에 빛나는 명작으로, 그 외 총 3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고, 18개 부문에서 수상했다. 또한, 이번에 개봉하는 <불의 전차>는 디지털 리마스터링과 감독판 버전으로 관객들에 더 선명한 화질과 풍부한 이야기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영화를 두 번 개봉해보니 극장이 없으면 영원히 을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.

“CBS 시네마쥬?”

“네, 맞습니다. CBS 시네마 영화는 이런저런 영화가 있고 상영시간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. 그런데 죄송하지만 매진입니다.”

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렵니다.^^